

# 朝鮮 通信使 服飾의 一研究

李 京 子  
弓 民 峯

<目 次>	
I. 序 論	A. 上上官服類
A. 研究目的	B. 上官服類
B. 研究資料 및 方法	C. 次官服類
II. 通信使와 服飾史的 背景	D. 中官服類
III. 文獻에 나타난 通信使一行 服飾	E. 下官服類
A. 通信使의 職分別 服色	V. 要約 및 結論
B. 通信使의 儀禮服色	參考文獻
IV. 圖繪에 나타난 通信使行的 服飾	

## I. 序 論

### A. 研究目的

通信使는 朝鮮時代 우리나라에서 日本에 파견했던 外交使節이다.<sup>1)</sup> 王朝初期부터 있어온 通信使는 壬辰倭亂으로 한때 파견이 중단되었다가, 亂後 15年만에 日本의 要請으로 復活되어 宣祖 40年(1607)~純祖 11年(1811)까지 약 200년 동안 12차례 使行이 있었다.

壬亂後 이들의 使行記錄은 通信使의 日記인 海行摠載와 日本畫工이 그린 圖繪로 남아 있다. 이 論文은 이들 資料에 나타난 服飾을 考察·檢證하여 朝鮮中後期 服飾制度의 實狀을 살핀 것이다.

文獻과 圖繪에 나타난 通信使一行은 200~500名의 大部隊로, 위로는 正·副使의 通信使를 비롯하여 아래로는 沙工에 이르는 各階層을 網羅하고 있어, 이들의 服飾을 考察함으로써 當時의 各種 冠服을 總括해 볼 수 있으며, 使行記錄이 남아 있는 200年間의 服飾變遷도 把握해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은 外交使節로서의 威儀를 갖추었으므로 服飾制度和 格式에 소홀함이 없으리라 기대된다. 이 점은 圖繪에 나타난 服飾의 豪華로움으로도 알 수가 있다. 반면 使行의 文獻記錄은 格式을 갖춘 公式行事나 行列 뿐 아니라 數個月에 걸친 旅程中, 日常起居時의 차림까지 細細히 적고 있다. 이것은 公服 뿐 아니라 生活服飾에 관한 資料로서도 重要하다.

이 論文은 위 두가지 資料 중, 圖繪를 주로 하고 거기 보인 服飾을 海行摠載와 對比하며, 當時 服飾制度에 관한 法制와 各種文獻으로 檢證하도록 애썼다.

一般的으로, 服飾史料로서의 圖繪는, 그것이 實際의 着裝 모습과 그 情感을 함께 傳해 주므로 退藏된 實物과는 다른 史料의 價値가 認定된다. 그것은 形態論的 考察에는 未洽함이 있으나 服飾生活의 實狀과 着裝의 實際 效果를 高찰함에 매우 유익하다.<sup>2)</sup> 더구나 實物史料가 몹시 貴한 우리나라 형편에서 圖繪史料는 빠뜨릴 수 없는 研究資料이다.

다만 服飾史料로서의 圖繪는 그것이 寫實的이

1) 國譯 大典會通 卷之三 禮典(1975), (서울: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p. 290.

2) 李京子(1982a), “動駕鹵簿의 服飾研究”, 『韓國文化研究院論叢, 第40輯』,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p. 483.

〈表 1〉 圖 繪 資 料

圖 繪 名	作 家	年 度	크 기	所 藏	備 考
朝鮮通信使行列圖			全長 17.45m 幅 29.1cm	日 本 天理大 博物館	行列圖. 登城하는 行列광경으로 推測됨.
正德信使行列 繪卷 登城行列圖		1711	全長 42.16m 幅 27.2cm	國史編纂委員會	行列圖. 朝·日 쌍방의 주요인물, 行列하는 사람의 복장, 소지품까지 선명한 색으로 세밀히 그림.
朝鮮人來朝行列記	喜多川 歌磨	1811	全長 2.7m 幅 17cm	高麗大 博物館	行列圖. 그림 앞면에 朝鮮人 내빙 약력이 적혀 있다. 그러나 직분 판별이 거의 불가능하여 판별 가능한 것만 사용.
信使一行着服之圖 正裝服飾圖			全長 10.83m 幅 47.5cm	國史編纂委員會	人物圖. 正·副使를 위시하여 수행원 36명의 立像을 그림. 인물의 의상묘사에 중점을 두었음.
信使一行着服之圖 響應服飾圖			全長 8.77m 幅 47.5cm	國史編纂委員會	人物圖. 正·副使를 위시하여 수행원 45명의 坐像을 그림. 인물의 의상묘사에 중점을 둠.
朝鮮信使人物圖		1811		日 本 東西國立博物館	人物圖. 正使 김리교를 위시하여 上·中·下官까지 수행원들의 초상화 수록. 의상묘사 뛰어남.

고 精巧할 때만 그 가치가 있다. 通信使行을 그린 日本 畫工의 圖繪들은 이같은 史料條件을 充足하고 있다. 通信使가 文化交流의 큰 역할을 담당했고 저들은 朝鮮의 수준 높은 文物制度를 喜모해온 터이므로, 使行接待가 극진했을 뿐 아니라, 그 記錄畫에도 소홀함이 없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B. 研究資料 및 方法

本 論文에 쓰인 資料는 總 6點의 記錄畫이다.  
(表 1)

그 중 行列圖는 行列의 進行順序를 따라, 隊伍와 儀杖, 옷차림 등을 細密하게 描寫함과 동시에 主要人物은 그 職責을 表記하고 있어, 職分에 따른 服飾形制의 觀察을 可能하게 한다.

人物圖는 人物의 細細한 衣裝 描寫뿐 아니라, 개성까지도 표현되어 있는 초상화적 성격을 띄고 있다.

위의 圖繪를 뒷받침하는 文獻資料로는 海行摠載를 들 수 있다. 이는 朝鮮의 對日外交使臣들의 生생한 記錄集이다. 對日國交正常化가 이루어진 以後 使行이 있을 때 마다 通信使와 그 수행원이 日記體의 記錄을 전해 주고 있는고로 當

時의 狀況을 아는데 貴重한 資料가 되고 있다. 그러나 本 研究의 대상 期間이 壬亂以後의 2百年間이므로 海行摠載 中 16種을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表 2)

〈表 2〉 文 獻 資 料

年 度	書 名	著者職分	著 者
1607	海 槎 錄	副 使	慶 暹
1617	扶 桑 錄	從 事 官	李 景 稷
1617	東 槎 上 日 錄		吳 允 謙
1624	東 槎 錄	副 使	姜 弘 重
1636	丙子日本日記		林 統 統
1636	海 槎 錄	副 使	金 世 濂
1636	東 槎 錄	從 事 官	黃 辰 辰
1643	癸未東槎日記		
1655	扶 桑 錄	從 事 官	南 龍 翼
1682	東 槎 錄	譯 官	洪 禹 載
1682	東 槎 日 記	譯 官	金 指 南
1711	東 槎 日 記	副 使	任 守 幹
1719	海 游 錄	製 述 官	申 維 翰
1748	奉使日本時間見錄	從 事 官	曹 命 采
1764	海 槎 日 記	正 使	趙 曦
1811	東 槎 錄		柳 相 弼

圖繪와 文獻을 分析함에 있어서 이 研究는,  
1) 圖繪에 나타난 通信使 總 490名의 服飾을

各 職分에 따른 服飾形制別로 着裝 모습을 분석 정리하였다.

2) 文獻에 나타난 通信使의 行路에 따른 行事의 옷차림을 분석·정리하였다.

3) 圖繪와 文獻의 服飾 結果를 實物과 대비하여 검증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마지막으로 요약하여 그 特徵을 記述하였다.

## II. 通信使와 服飾史的 背景

通信使는 朝鮮에서 日本으로 파견되는 사절을 말한다. 日本과의 通交에는 그 使行 目的에 따라 通信, 回禮, 修好, 報聘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려졌으나 德川政權에 의한 새로운 外交管理의 체제가 형성된 후, 仁祖 14年(1636)에 처음으로 「日本通信使」의 名義에 의한 외교사절이 日本을 방문하게 된다.<sup>3)</sup>

朝鮮時代의 대외 관계는 中國에 대한 事大와 日本, 女眞 등에 대한 交隣으로 요약된다.

이 중, 日本과의 交隣通交는 朝鮮王祖初期부터 있어 왔으며, 우리는 倭寇防止를 위한 平和的 懷柔를 目的으로, 日本측에서는 交易上 利益을 위한 使行이 여러 차례 있었다.<sup>4)</sup>

世宗 2年(1420) 宋希璟이 回禮使로 日本에 差遣된 이래로 15C중, 6회에 걸쳐 遣使가 있을만큼 활발했으나 成宗 10年(1479) 通信使 李亮元이 풍랑으로 病을 얻어 日本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온 뒤로는 使節의 파견을 중지하였다.<sup>5)</sup>

그 이후 日本에서도 戰國時代의 혼란이 거듭되었으므로, 對朝鮮通交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sup>6)</sup>

壬辰倭亂은 이런 外交空白이 계속되던 뒤에 일어났으며 7년에 걸친 戰亂의 結果로 兩國의 관계는 斷交狀態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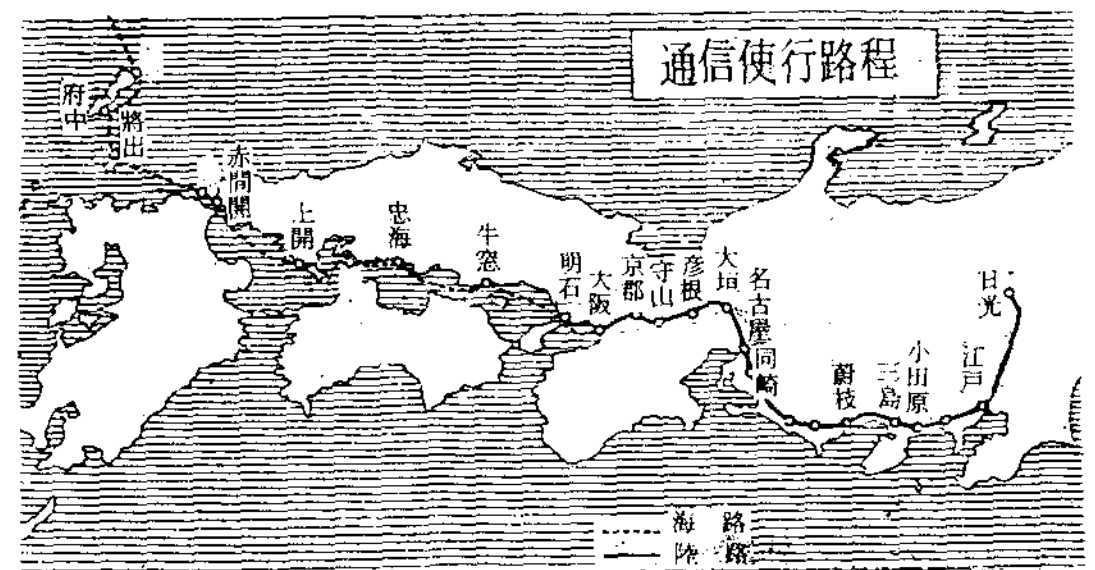
일시 중단되었던 朝·日國交는 1599년 6월 日

本の 관백, 德川家康가 對馬島主 宗義智에게 命을 내려 朝鮮에 使者를 보내게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sup>7)</sup>

德川幕府에 의한 國交回復工作은 朝鮮側의 엄한 反日感情 때문에 쉬이 實現되지 못하였다. 그 後 1601年 對馬藩主의 宗氏가 使者를 보내어 豐臣秀吉가 犯한 범죄 행위를 깊이 사과하고<sup>8)</sup> 壬亂中에 붙들어 갔던 朝鮮人 포로 5천7백20名을 돌려 보냄에 朝鮮에서도 通交를 허락하였다.<sup>9)</sup>

그 결과 宣祖 40年(1607) 德川政權에 대한 回禮와 修好의 뜻으로 回答 兼 刷還使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使節을 파견하게 되었으며, 1636年 8월에 이르러 처음으로 通信使라는 名義로 외교사절단이 日本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의 對日使節團은 純祖 11年(1811)까지 12회에 걸쳐 파견하였다.(表 3)(圖 1)



〈圖 1〉 通信使 行路程<sup>10)</sup>

그런데 18C 후반에 들어 通信使 外交方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日本國學者間에 일어났다. 1786年 將軍 家治가 死亡하고 家齊가 代를 이음에 老中인 松平定信은 先例에 따라 그것을 朝鮮에 通報하지만 通信使 招請에 관해서는 재정상의 곤궁을 이유로 時期의 연기를 要請했다.<sup>11)</sup> 그리고 1811년에는 通信使의 접대가 對馬에서

3) 中村榮孝(1969), “朝鮮の日本通信使と大阪”, 「日本關史の研究(下)」, (동경: 吉川弘文館), p. 157.

4) 李相佰(1959), “倭寇와 對日關係”, 「韓國史近世前期編」(震夏學會), p. 134.

5) 앞 글, p. 140.

6) 閔斗基(編)(1980), 「日本の 歷史」(서울: 知織産業社), p. 113.

7) 金鍾旭(1973), “壬亂後의 朝鮮과 日本의 復交”, 「日本研究」, p. 149.

8) 李進熙(1976), 「李朝の通信使」(東京: 講談社), p. 26.

9) 金鍾旭(1973), p. 151.

10) 李相佰(1959), 「韓國史近世後期編」, pp. 76~78 참조.

11) 李進熙(1976), p. 49.

〈表 3〉

通 信 使 的 的 見<sup>12)</sup>

年 代		正 使	副 使	從 事 官	總 人 員 ( ) 中 大 坂 殘 留 數	編 纂 物
西 紀	朝 日 鮮 本					
1607	宣祖 40 慶長 12	呂 祐 吉 (癡 溪)	慶 暹 (七 松)	丁 好 寬 (一 翠)	467	海槎錄(慶暹)
1617	光海君 9 元和 3	吳 允 謙 (楸 灘)	朴 梓	李 景 稷 (石 門)	428 (78)	扶桑錄(李景稷) 東槎上日錄(吳允謙)
1624	仁祖 2 寬永 元	鄭 岄 (鳥 川)	姜 弘 重 (道 村)	辛 啓 榮 (鷺 山)	300	東槎錄(姜弘重)
1636	仁祖 14 寬永 13	任 統 (白 麓)	金 世 濂 (東 溟)	黃 辰 (漫 浪)	475	丙子日本日記(任統) 海槎錄(金世濂) 東槎錄(黃辰)
1643	仁祖 21 寬永 20	尹 順 之 (淳 溟)	趙 綱 (龍 洲)	申 濡 (竹 堂)	462	海槎錄(申濡) 東槎錄(趙綱) 癸未東槎錄
1655	孝宗 6 明曆 元	趙 珩 (翠 屏)	俞 瑒 (潭 翁)	南 龍 翼 (壺 谷)	488 (103)	扶桑錄(南龍翼)
1682	肅宗 8 天和 2	尹 趾 完 (東 山)	李 彥 綱 (鷺 湖)	朴 慶 後 (竹 菴)	475 (113)	東槎日錄(金指南) 東槎錄(洪禹載)
1711	肅宗 37 正德 元	趙 泰 億 (平 泉)	任 守 幹 (靖 菴)	李 邦 彥 (南 岡)	500 (129)	東槎錄(金顯門)
1719	肅宗 45 享保 4	洪 致 中 (北 谷)	黃 璿 (鷺 汀)	李 明 彥 (雲 山)	479 (114)	海槎日錄(洪致中) 海游錄(申維翰) 扶桑紀行(鄭后僑)
1748	英祖 24 寬延 元	洪 啓 禧 (澹 窩)	南 泰 耆 (竹 裏)	曹 命 采 (蘭 谷)	475 (83)	日本日記 奉使日本時間見錄(曹命采)
1764	英祖 40 明和 元	趙 曦 (永 湖)	李 仁 培 (吉 菴)	金 相 翊 (弦 庵)	472 (106)	海槎日記(趙曦)
1811	純祖 11 文化 8	金 履 喬 (竹 里)	李 勉 求 (南 霞)		226	

그치고, 이 뒤로는 通信使의 的 見이 없었다.<sup>13)</sup>

이상과 같이 日本을 往來한 通信使의 服飾은 宣祖代에서 純祖代에 이르는 朝鮮王朝時代 服飾을 거의 망라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위에 지적한 年代는 우리 服飾史上 매우 重要하고 興味있는 時期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服飾史는 朝鮮王朝時代 服飾을 前期와 中後期, 그리고 國末의 開化期로 時代區分한다.<sup>14)</sup> 이 중, 前期의 服飾은 高麗末

期 服飾의 踏襲과 中國 明制의 受容으로 特徵지어 지며, 그 服飾制度는 經國大典으로 集成된다. 반면 朝鮮 中後期의 服飾은 壬亂以後의 社會變動을 反映하여 前期와는 상당한 差異를 보이며, 中國의 明清 王朝交代 뒤에는, 淸의 直接的인 服飾干涉이 없는데, 獨特하게 發展한다. 開化期의 服飾이 外來의 影響으로 變모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朝鮮 中後期의 服飾發展은 우리 服飾傳統을 決定짓는 것이니, 이때를 韓國服飾

12) 李進熙(1976), p. 28.

13) 李元植(1973), “純祖十一年 辛未日本通信使 差遣에 대하여”, 『史學研究』, 第23號(韓國史學會), pp. 95~96.

14) 金東旭(1973), 『增補 韓國服飾史研究』(서울: 亞細亞文化社), pp. 163~340.

形成期로 規定하기로 한다.<sup>15)</sup> 通信使의 年代는 바로 이 時期에 해당한다. 通信使行의 服飾을 관심깊게 考察함은 이때문이다.

Ⅲ. 文獻에 나타난 通信使一行 服飾

文獻資料에 쓰인 「海行摠載」는 우리 使臣들의 使行日記를 모아 편집한 冊으로 對日外交使臣들의 생생한 記錄集이다. 이 文獻은 通信使나 그 隨行員이 日記體의 記錄으로 전해주고 있다. 使行 12회에 대한 기록 中, 16種을 선정하여 그 文獻에 나타난 各分別 服飾構成과 使行路에 따

른 服飾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A. 通信使의 職分別服色

通信使服飾에 대한 海行摠載의 기록은 산발적이다. 이것을 종합분석하면 직분에 따라 三使信服, 堂上譯官 및 員役服, 軍官 및 裨將服, 使令服 等 대략 四種類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構成은 다음과 같다.

三使信<sup>16)</sup>의 服飾은 朝服, 團領, 道袍, 儒生服 등이 나타난다.

團領은 1607~1655년에는 冠帶, 公服, 官服, 1711~1748년에는 行事に 따라 黑·紅團領, 公

〈表 4〉 三 使 信 服

行 事	年 度	1607	1617	1624	1636	1643	1655	1682	1711	1719	1748	1764	1811
京城一釜山		冠帶						唐冠 道衣	青袍 黑團領				와룡관 학창의
對馬島府中						冠帶	冠帶		朝服	黑團領	朝服		흑단령 와룡관 학창의
島主의 相見禮					冠帶				儒道冠	紗袍	帽紅團領		
島主의 宴會					冠帶	冠帶	官服 平服(私宴)				黑團領 갓도(사연)	紅團領 와룡관 난삼(사연)	
大 阪											團領	紅團領	
倭 京			冠帶				冠帶	公服	公服	紅團領	道袍	紅團領	
江 戶						冠帶			紅團領	紅團領	紅袍	紅團領	
傳命禮			冠帶				公服		朝服	金朝冠服	金朝冠服	金朝冠服	金朝冠服
關白의 宴會							官服(공연) 便服(사연)	公服(공연) 平服(사연)		黑團領	紗帽紅袍(공연) 道袍(사연)	紅團領(공연) 와룡관난삼(사연)	
關白의 回答書			冠帶				冠帶	公服			公服	公服	
上馬宴										平服			
太學頭接見									儒冠衣		幅巾, 심의, 도포	와룡관 난삼	
上船宴								公服		紅團領			와룡관 학창의
復 命								紅團領			官服		

15) 李京子(1982b), “우리衣生活의 傳統樣式”,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 5 집,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2~7.

16) 3使信은 正使, 副使, 從使를 일컫는다. 正·副使는 정3품, 從使는 정5, 6품에서 차견하였다. (『通文館志』 6卷, 交隣下, 通信使行, p. 84).



<表 5>

堂上譯官 및 員役服

行 事	年 度	1607	1617	1624	1636	1643	1655	1682	1711	1719	1748	1764	1811
京城一釜山								黑團領 公服				紅團領	黑團領
對馬島府中도착			冠帶			冠帶	冠帶	黑團領 公服		冠帶	官服		東破官 道袍 黑團領
예조서계 및 예단전달								團領					
島主와의 相見禮						冠帶					紅團領		
島主의 宴會					冠帶	冠帶				紗帽 黑團領			時服
倭 京					冠帶								道袍官服
江 戶				冠帶	冠帶	冠帶		公服		紅團領	紗帽 紅袍		時服
傳 命 禮			冠帶		冠帶						黑團領	黑團領	團領黑團領
예조서계와 예단전달								公服					
관백의 회답서									黑團領				
對馬島(上船宴)											黑團領		

<表 6>

軍官 및 裨將服

行 事	年 度	1607	1617	1624	1636	1643	1655	1682	1711	1719	1748	1764	1811
京城一釜山													戎服
對馬島府中													軍服
島主와의 相見禮											戎服		
島主의 宴會										軍服	戎服	戎服	
大 阪												軍服	
倭 京												戎服	
江 戶										羽笠 金袍	戎服	戎服	戎服

服, 官服, 1764년에는 紅團領, 公服, 1811년에는 黑團領 등의 기록으로 나타난다. 1748年 便服의 형제로 갖과 道袍가 보인다.

記錄에는 三使信이 享宴時 私宴에 착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1748年 以前에는 단지 平服 또는 便服으로 구체적인 構成에 대한 언급이 없다.

儒生服은 冠에 儒冠, 臥龍冠, 唐冠, 巾에 幅巾, 服에 深衣, 欄衫, 鶴擎衣가 보인다. 이는 朝鮮朝에 주로 儒生들이 착용했던 옷이므로 本考에서는 이들을 儒生服으로 묶었다.

이들의 構成은 1682년에는 唐冠一道衣(乘船日), 1711년에는 儒冠一儒衣(太學頭 접견시), 1719년에는 儒冠一道袍(島主와의 相見禮), 1748년에는 幅巾一深衣(太學頭 접견시), 1764년에는 臥龍冠一欄衫(太學頭 접견, 私宴時), 1811년에는 臥龍冠一鶴擎衣(乘船時, 對馬島府中, 上船宴) 등으로 보인다.

以上에 나타난 三使信의 服飾構成은 <表 4>와 같다.

堂上譯官 및 員役服<sup>17)</sup>은 앞서 기술한 바 있는 團領, 平服, 外에 東破冠一道袍 등이 나타난다.

以上은 <表 5>와 같다.

軍官 및 裨將服<sup>18)</sup>은 戎服과 軍服이 함께 나타난다.

기록에 의하면 軍官服은 1719년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후 1811년까지 戎服과 軍服이 함께 보이며 <表 6>과 같다.

使令服으로서 海行摠載에는 1748年 對馬島主와의 相見禮時 鵲衣羽笠을 착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 B. 通信使行의 儀禮服色

通信使行의 儀禮服色은 京城을 出發하여 日本目的地에 도착할 때까지 各 儀禮에 따른 服飾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服飾 절차는 通信使의 行路인 京城—釜山, 對馬島, 大阪, 倭京, 江戸, 對馬島(回程時) 順으로, 特히 大阪, 倭京, 江戸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各 行事に 따른 服飾의 변화는 그 도착 지역과 儀式의 비중에 따라 또는 연회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다. 다음은 도착지 별로 나누어 본 옷차림이다.

#### 1. 京城—釜山

諸般의 준비가 끝나면 3사신 이하 모두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며 崇禮門으로 나와 關王廟에 이르러서는 一行이 靑袍로 바뀌어 입는다.<sup>19)</sup>

通信使一行은 東萊에 도착하여 유숙하였고, 이 때 黑團領으로 갈아 입었다.<sup>20)</sup> 동래를 떠나 부산에 도착하여 國書를 맞아 숙배하고, 左水使가 베푸는 연회석상에서 3사신은 黑團領을 입었다는 기록<sup>21)</sup>과 3사신 이하는 紅團領을 입었다는 기록<sup>22)</sup>이 있다.

부산에 머무는 동안 海神祭의 儀式을 거행하는데, 그 때의 服飾은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正·副使와 從事官이 冠帶 갖추<sup>23)</sup>

3使信以下 여러 관원이 모두 검은 冠帶 착용<sup>24)</sup>  
使信以下 모두 公服차림<sup>25)</sup>.....

이와 같은 절차가 끝나면 드디어 乘船을 해대마도를 향했다. (表 7)

#### 2. 對馬島

##### 가. 對馬島府中 도착

釜山 永嘉臺를 출발하여 對馬府中에 당도하면 島主와 두 長老가 각기 彩船을 타고 나와서 맞이한다. 배가 船所에 도착하면 島主가 使者를 보내 上陸을 請하고, 三使信以下 冠帶를 바로하고 國書를 넣은 龍亭을 받들어 鼓樂을 울리면서 旗纛, 節鉞, 螺角, 火砲를 가진 者가 左右로 隊를 이루고 軍官, 譯官 및 諸從者로 列을 지어 館으로 나아간다. 이 때의 衣服으로 使信은 使行에 따라 朝服 또는 團領, 員役들은 團領을 입었음을 알 수 있고, 1811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服이 보인다. (表 7)

##### 나. 禮曹書契 및 禮單 전달

우리 통신사 側에서는 堂上譯官 및 上判事 등을 島主에게 보내어 禮曹의 書契를 전하게 하였다.

이 때의 衣服에 관한 기록은 세 堂上이 團領을 착용했다고 洪禹載의 東槎錄(1682)에만 기록되어 있다.

##### 다. 島主와의 相見禮

島主와의 相見禮時에는 奉行들이 먼저 와서 사신을 뵈 뒤 비로소 도주가 관사로 오는 것이 관례이다.

이 때의 服飾으로 사신은 儒冠에 道袍<sup>26)</sup>, 또는 團領을 입고 비장은 戎服, 사령은 羽笠鵲衣를 입었다는 기록<sup>27)</sup>이 있다. (表 7)

17) 이희승(1965), 「국어대사전」(서울:민중서관), 吏胥의 한가지.

18) 李弘植(1980), 李朝의 官制, 監司, 留守, 兵使, 水使 등의 지방장관 및 중국사신을 수행하던 무관으로 지방장관이 임의로 임명하였다.

19) 申維翰(1719), “海游錄”, 「국역해행총재 I」(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77), p. 368.

20) 洪禹載(1682), “東槎錄”, 「국역해행총재 VI」, p. 137.

21) 申維翰(1719), p. 370.

22) 金指南(1682), “東槎日記”, 「국역해행총재 VI」, p. 260.

23) 李景稷(1617), “扶桑錄”, 「국역해행총재 III」, p. 15.

24) 姜弘重(1624), “東槎錄”, 「국역해행총재 III」, p. 174.

25) 洪禹載(1682), p. 139.

金指南(1682), p. 261.

26) 申維翰(1719), p. 405.

27) 曹命采(1748), pp. 44~46.

## 라. 島主와의 宴會

島主가 奉行을 보내어 宴會 行하기를 청해 오는데, 이를 下船宴<sup>28)</sup>이라 한다.

사신들은 軍樂을 울리며 儀杖隊를 앞세우고 차레로 가마를 탄다. 사신이 內門에 이르러 가마에서 내리는데 島主와 두 중이 公服차림으로 마루 끝까지 나와서 맞는다. 그리고 九酌九味の 禮를 行하니 이를 公宴이라 한다.

公宴이 끝난 후 사신들은 다른 廳에서 쉬면서 禮服을 벗고 平服을 입는 것이 準禮이며 以後를 私宴이라 한다.

이 享禮에서의 服飾으로 使信은 公宴에서는 禮服으로 官服을, 私宴에는 平服을 입었음을 알 수 있고, 員役은 團領, 軍官 및 裨將은 軍服 및 戎服을 착용했다. (表 8)

## 3. 大 阪

對馬島의 島主 宗氏의 先導로 壹岐 赤間關으로 나와 海路로 向浦 以下 各 地域을 거쳐 大阪城에 下陸하게 된다.

大阪에 머무르는 동안 江戶의 命으로 이른바 숙공연을 베푸는데 대체의 범절은 對馬島의 享禮와 다름이 없으나 供帳의 諸具가 더욱 사치하였다.

숙공연에 참석할 때의 衣服은 3사신이 團領<sup>29)</sup> 또는 紅團領을 입고 軍官은 軍服을 갖추었다는 기록<sup>30)</sup>이 있다.

## 4. 倭 京

大阪에서 日本의 小船에 替乘한 後 淀浦에 이르러, 이로부터는 陸路로 倭京에 도착한다. 倭京에 도착해서 通信使一行은 正覺山 實相寺에서 옷을 갈아 입고 倭京에 도착하여 館所로 향한다. 이 때의 衣服은 大阪보다 더욱 찬란했으며 3사신 모두 團領을 착용했으나 1748년에만 道袍로 나타난다. (表 8)

## 5. 江 戶

## 가. 江戶入城

通信使 一行이 倭京을 출발하여 森山 佐和山 外 여러 곳을 거쳐 江戶에 도착하는데, 使信들이 江戶에 들어가기 전에 영접관이 와서 從者의 옷을 새 것으로 갈아 입혀서, 행차가 江戶에 들어갈 때는 화려하고 정제된 상태를 보이게 하도록 했다.<sup>31)</sup>

一行이 行列을 정돈하여 江戶의 使館을 향해 가는 모습은 대단히 호화찬란하고, 使節通過時는 江戶의 백성이 貴賤을 불문하고 고운 옷으로 단장하고 길 左右에 정돈하여 맞이한다.<sup>32)</sup>

江戶入城時의 服色은 3사신과 사신 이하, 모두 團領袍, 軍官은 戎服 또는 軍服을 입었다. (表 8)

## 나. 傳命禮(國書傳達)

通信使 一行이 江戶에 머무르는 동안에 傳命禮<sup>33)</sup>儀式이 있다. 이 儀式은 使行에 따라 약간의 差異는 있으나 大同小異하다.

傳命禮는 申維翰의 「海游錄」에 구체적으로 記錄되어 있다.<sup>34)</sup> 이 곳에서 國書傳達 儀式이 끝나면 關白의 宗臣主催下의 宴會가 열리는데, 이 때의 服은 1655年 使行까지는 傳命禮時 3사신이 團領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며, 1682年 使行과 1711年 使行中의 어느 때인가 3사신은 金冠朝服을 착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使行時 員役은 團領, 軍官은 戎服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表 9)

## 다. 禮曹의 書契와 禮單傳達

傳命禮 後에는 禮曹의 書契 別幅 및 使信의 私 禮單을 執政, 宗室以下 各處에 나누어 보냈다.

이 때의 衣服은 三堂上이 公服을 입고 宗室家에 갈 때에는 三堂上 以下 平服을 입었다.<sup>35)</sup>

## 라. 馬上曲藝

對馬島主가 말 타는 재주를 그의 집에서 사사로이 시험하기를 청하는데, 이는 관례이다. 馬

28) 「通文館志」(숙종 40년, 1714), 「韓國學基本叢書」第十一輯(서울: 景仁文化社, 1973), p. 91.

「彼地宴享初次馬島有 下船宴到江戶有 別宴還到馬島有 上船宴此爲宴之大者皆享於島主之家使以下具公服……酒九酌然後又進飯奉退坐歇廳改具便服而……」(· 필자)

29) 曹命采(1748), p. 104.

30) 趙 暉(1764), p. 151.

31) 曹命采(1748), p. 148.

32) 李進熙(1976), p. 154.

33) 「通文館志」, p. 92. 「當日設軍儀鼓吹 軍官 戎服 先導龍亭次之使臣以下公服隨行入關白宮城」, (· 線 필자).

34) 申維翰(1719), pp. 531~533.

35) 洪禹載(1682), pp. 201~202.



〈表 7〉

通 信 使 行 의 服 色

年度	職分	京 城 一 釜 山			對馬島府中 도착			島主와의 相見禮		
		服 飾		비 고	服 飾		비 고	服 飾		비 고
		冠	服		冠	服		冠	服	
1607	使信이하									
1617	三使信 使信이하	冠	帶		冠	帶	李景稷(1617), p. 22.			
1624	使信이하	冠	帶							
1636	使信이하									
1643	使信모두				冠	帶 <sup>38)</sup>		冠	帶	작자미상(1643) p. 234.
1655	三使信 使信모두				冠	帶 <sup>39)</sup>				
1682	三使信 使信이하	唐冠	道衣	乘船日 <sup>36)</sup> 黑團領, 公服 東萊, 釜山, 海神祭		公服 黑團領	金指南(1682), p. 269. 洪禹載(1682), p. 147.			
1711	三使信		靑袍, 黑團領	관왕묘, 부산연회	紗帽	朝服 <sup>40)</sup> 黑團領				
1719	堂上譯官 員 役 軍 官				冠	帶	申維翰(1719), p. 397.	儒冠道袍		申維翰(1719), p. 405.
1748	三使信 堂上譯官 員 役 裨 將 使 令					朝服 <sup>41)</sup> 官服		紗帽 紅團領 紅團領 戎服 羽笠 鵲衣		曹命采(1748), pp. 44~46.
1764	三使信 員 役 軍 裨 官 將		紅團領	부산연회						
1811	正使 副使 堂上譯官 員 役 軍 官	臥龍冠	학창의 黑團領 戎服	승선일 <sup>37)</sup>		黑團領 학창의 도포 黑團領 軍服	柳相弼(1811), p. 303.			

36) 金指南(1682), p. 261.

37) 柳相弼(1811), “東槎錄”, 「국역해행총재 X」, p. 292.

38) 작자미상(1643), “癸未東槎日記”, 「국역해행총재 V」, p. 233.

39) 南龍翼(1655), “扶桑錄”, 「국역해행총재 V」, p. 360.

40) 任守幹(1711), “東槎日記”, 「국역해행총재 IX」, p. 168.

41) 曹命采(1748), “奉使日本時聞見錄”, 「국역해행총재 X」, pp. 34~35.

〈表 8〉

年度	行事 職分	島主의 宴會				倭 京			江戸入城時		
		服飾		기 타	비 고	服飾		비 고	服飾		비 고
		冠	服			冠	服		冠	服	
1607	使信이하										
1617	三使信 使信이하					冠	帶	李景稷(1617), p. 67.			
1624	使信이하								冠	帶	姜弘重(1624), p. 228.
1636	使信이하	冠	帶 <sup>42)</sup>			冠	帶	金世濂(1636), p. 74.	冠	帶 <sup>44)</sup>	
1643	使信모두	冠	帶		작자미상(1643) p. 236.				冠	帶	작자미상(1643) p. 272.
1655	三使信 使信모두	冠	帶	사연에 平服	南龍翼(1655), pp. 364~365.	冠	帶	南龍翼(1655), p. 490.			
1682	三使信 使信이하		官服	사연에 平服	洪禹載(1682), pp. 152~153.		公服	洪禹載(1682), p. 183.		公服	金指南(1682), p. 299. 洪禹載(1682), p. 195.
1711	三使信						公服	壬守幹(1711), p. 209.		公服	
1719	堂上譯官 員 役 軍 官	紗帽	黑團服 軍服		申維翰(1719), p. 414.		紅團領	申維翰(1719), p. 498.		紅團領 紅團領 軍服	申維翰(1719), p. 522.
1748	三使信 堂上譯官 員 役 裨 將 使 令		黑團服 戎服	私宴에 갖, 도포 고 진	曹命采(1748), pp. 56~58.		道袍 道袍	曹命采(1748), p. 117.		紅袍 紅袍 戎服	曹命采(1748), p. 150.
1764	三使信 員 役 軍 官 裨 將		紅團領 時服 戎服	私宴 <sup>43)</sup> 와룡관, 난삼			紅團領 官服 戎服	趙 曦(1764), p. 159.		紅團領 時服 戎服	趙 曦(1764), p. 189.
1811	正使 副使 堂上譯官 員 役 軍 官										

42) 金世濂(1636), “海槎錄”, 「국역해행총재 IV」, p. 52.  
 43) 趙 曦(1764), “海槎日記”, 「국역해행총재 VII」, p. 74.  
 44) 林 統(1636), “丙子日本日記”, 「국역해행총재 III」, p. 352.  
 黃 泉(1636), “東槎錄”, 「국역해행총재 IV」, p. 377.

〈表 9〉

年度	行事 服飾 職分	傳命禮(國書傳達)			關白의 宴會			關白의 回答書			
		服飾		비 고	服飾		기 타	비 고	服飾		비 고
		冠	服		冠	服			冠	服	
1607	使信이하	冠	帶 <sup>45)</sup>								
1617	三使信 使信이하	冠	帶	林 統(1617), p. 360.					冠	帶	吳允謙(1617), p. 373.
1624	使信이하										
1636	使信이하	冠	帶	黃 屎(1636), p. 101.							
1643	使信모두										
1655	三使信 使信모두		公服	南龍翼(1655), p. 534.	官服	私宴便服	南龍翼(1655), p. 564.	冠	帶	南龍翼(1655), p. 561.	
1682	三使信 使信이하				公服	私宴平服	洪禹載(1682), p. 205.		公服	洪禹載(1682), p. 204.	
1711	三使信	金冠	朝服	〈행렬도참조〉							
1719	堂上譯官 員 役 軍 官	紗帽 羽笠	黑團領 金 袍	申維翰(1719), p. 531.	黑團領		申維翰(1719), p. 539.		黑團領	申維翰(1719), p. 543.	
1748	三使信 堂上譯官 員 役 裨 將 使 令	金冠	朝服 黑團領 戎服	曹命采(1748), p. 169.	紗帽 紅 袍	私宴道袍	曹命采(1748),		公服	曹命采(1748), p. 184.	
1764	三使信 員 役 軍 官 裨 將	金冠	朝服 團 領 戎服	趙 曦(1764), p. 206.	紅團領	私宴에 와룡관, 난삼	趙 曦(1764), pp. 219~220.		公服	趙 曦(1764), p. 223.	
1811	正使 副使 堂上譯官 員 役 軍 官	金冠 金冠	朝服 朝服 黑團領 黑團領 戎服	柳相弼(1811), p. 320.							

45) 慶 暹(1607), “海槎錄下”, 「국역해행총재 II」, p. 299.

上才는馬上에서行하는 여덟 가지 무예를 말하며, 관백·태수들도 관람하였다.

다. 關白의 宴會(別宴)

江戸에 머무르는 동안 관백의 命으로 島主의 집에서 잔치를 베푼다. 이 宴會에 참석하기 위하여 세 사신은 모두 冠帶를 갖춘다. 宴會를 마친 후에는 平服으로 갈아 입고, 다시 島主가 後堂에서 베푼 私宴에 참석한다.

이 때의 服色은 對馬島 연회에서와 같이 公宴에는 禮服으로 團領, 私宴에는 平服을 입었다.

(表 9)

바. 關白의 回答書

宴會가 끝나고 江戸에 머무는 동안 관백의 사자인 집정 2인이 우리 사신의 館所로 관백의 회답 문서와 사신 이하에게 증여하는 禮物을 가지고 온다. 이 때에, 우리 側에서는 군사 威儀를 갖추고 그들을 맞이하여 回禮單子를 받는다.

이 때의 衣服은 3使臣 모두 公服을 착용했다.<sup>46)</sup>(表 9)

사. 上馬宴

관백의 명령으로 館伴이 사신의 관소에서 一行의 上·下 모두에게 上馬宴을 베푼다.

이 때의 衣服은 3사신이 모두 平服차림으로 대청에 나가 받았다 한다.<sup>47)</sup>

아. 太學頭 접견

사신이 江戸에 머무르는 동안 太學頭 父子가 館所로 찾아와 사신들을 접견하는데 이는 관례라 한다.

이 때 우리 사신들의 衣服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제술관, 三書記가 儒衣 儒冠을 착용<sup>48)</sup>, 정사는 深衣를 입고 幅巾을 쓰고, 副使와 從事官은 道袍를 입음<sup>49)</sup>, 세 사신이 난삼에 와룡관을 착

용<sup>50)</sup>.....등이 있다.

6. 對馬島(回程時)

江戸에서의 모든 行事が 끝나면 귀로에 오르게 되는데 一行이 回程하여 對馬島에 도착하면 島主가 上船宴이라는 宴會를 베푼다. 이 宴會의 절차는 下船宴과 같다. 이 禮가 파하면 잠시 쉬면서 平服으로 갈아 입고 다시 內廳으로 들어가 私宴에 참석한다.

이 때의 衣服에 대한 기록은,

세 사신을 포함하여 모두 公服을 입었고.....<sup>51)</sup> 세 사신, 제술관이 黑團領을 입음<sup>52)</sup>, 세 사신이 紅團領을 착용.....<sup>53)</sup> 등이 있다.

7. 復命

對馬島에서 乘船하여 釜山에 닿으면 上京하여 대궐에 들어가 복명하게 된다.

乘船日에 대한 기록은 柳相弼의 東槎錄에서만 볼 수 있는데, 두 사신이 학창의에 와룡관을 썼다고 한다.

一行이 城南 關王廟에 도착하면, 세 사신이 紅團領으로 갈아 입고 절월을 받들고 裨將을 시켜 길을 인도하게 하였다.<sup>54)</sup> 또 모두 官服으로 갈아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sup>55)</sup>

IV. 圖繪에 나타난 通信使行의 飾服

通信使行의 服飾이 나타나 있는 圖繪는 크게 나누어, 사절단의 行列을 그린 「行列圖」와 초상화를 그린 「人物圖」인데 이 圖繪의 형식은 두루마리이다. 이 圖繪에는 朝鮮의 3사신은 물론이려니와 朝·日 쌍방의 주요 인물과 行列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복장이나 소지품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고, 각종 색깔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本章에서는 「朝鮮通信使行列圖」는 以後 「通信

46) 「通文館志」, p. 94. 「受回答儀竣事臨還館伴館等修掃館宇置卓於外廳排列物件俄而回書至則三使公服出迎於階下島主奉而.....」, (· 필자).

47) 曹命采(1748), p. 190.

趙 暉(1764), p. 226.

48) 申維翰(1719), p. 528.

49) 曹命采(1748), p. 157.

50) 趙 暉(1764), p. 203.

51) 洪禹載(1682), p. 229.

52) 申維翰(1719), p. 16.

53) 曹命采(1748), p. 231.

54) 金指南(1682), d. 325.

申維翰(1719), p. 29.

55) 趙 暉(1964), p. 338.

使行列圖」로, 「正德信使行列繪卷登城行列圖」는 「登城行列圖」로, 「朝鮮人來朝行列記」는 「行列記」로 칭하기로하며, 人物圖인 「信使一行着服之圖正裝服飾圖」는 「正裝服飾圖」로, 「信使一行着服之圖饗應服飾圖」는 「饗應服飾圖」로, 「朝鮮信使人物圖」는 「信使人物圖」로 칭하겠다. 이 총 6편에 나타나 있는 通信使 및 그 一行 服飾을 분석하였다.

이에 나타난 人物의 職級은 다음 5등급으로 區分한다.<sup>56)</sup>

첫째, 上上官은 正使, 副使, 從使官, 堂上譯官을 포함시킨다.

둘째, 上官에는 上判事, 制述官, 次上判事, 寫字官, 醫員, 畫員, 書記, 軍官, 別破陣을 포함시킨다.

셋째, 次官에는 馬上才, 典樂, 理馬, 騎船將을 포함시킨다.

넷째, 中官은 卜船將 以下를 포함시킨다.

다섯째, 下官은 沙工, 格軍 등을 포함시킨다.

通信使 一行을 위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에 따른 通信使 服飾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옷을 분석함에 있어 옷차림은 것의 모양에 따라 團領과 直領으로 大別하여 通稱하였다.

### A. 上上官 服類

上上官 등급에는, 上上官 服類를 그 服制가 같은 三使信服과 堂上譯官服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三使信服

圖繪에 나타난 三使信服의 服飾形制는 梁冠에 朝服을 착용한 경우, 梁冠에 團領을 착용한 경우, 紗帽에 直領을 착용한 경우의 3가지로 구분된다.

“梁冠-朝服”의 服制는 「通信使行列圖」와 「正裝服飾圖」<sup>57)</sup>에서 볼 수 있다.(圖 1)

“梁冠-團領”의 服制는 「登城行列圖」와 「行列記」 「信使人物圖」에 나타난다.

이는 梁冠, 團領, 胸背, 帶, 笏 등으로 구성되나(圖 2), 「行列記」에서는 胸背만 제외되고,

「信使人物圖」는 冠에 있어 특이하다.(圖 3)

三使信服 形制로서 “紗帽-直領”은 「饗應服飾圖」와 「信使人物圖」에서 볼 수 있다.

「饗應服飾圖」에는 三使信이 모두 烏紗帽에 紅直領을 착용했으며 「信使人物圖」에도 正·副使가 公服으로 紗帽에 直領을 착용하고 있다.(圖 4)

#### 2. 堂上譯官 服類

圖繪에 나타난 堂上譯官服의 形制는 紗帽에 團領을 착용한 경우, 紗帽에 直領을 착용한 경우, 東破冠에 直領을 착용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은 다음과 같다.

堂上譯官服으로서의 “紗帽-團領”의 形制는 「登城行列圖」와 「信使人物圖」에서 볼 수 있는데 前·後者 모두 烏紗帽에 團領, 胸背를 부착했으며 前者에는 衣服으로 黑·綠色袍가 보인다.

“紗帽-直領”의 形制가 나타나는 圖繪는 「通信使行列圖」와 「正裝服飾圖」 「饗應服飾圖」이다. 「通信使行列圖」에는 烏紗帽, 紅·綠色直領袍로 구성되어 있으며, 「正裝服飾圖」에는 烏紗帽, 綠色直領에 胸背 부착(圖 5) 「饗應服飾圖」에는 三使信服과 마찬가지로 烏紗帽에 紅色直領袍를 착용했다.(圖 6)

“東破冠-直領”의 形制는 「信使人物圖」에 나타나 있으며, 東破冠의 좌측에 두 줄의 구슬장식이 있다. 이러한 形制는 堂上譯官이 對馬府中 도착시 입었다는 東槎錄(1811)의 기록과 일치된다.(圖 7)

### B. 上官服類

上官服類로는 通信使 一行 中, 上判事, 次上判事, 押物判事, 製述冠, 判事, 寫字官, 書記, 畫員, 醫員, 良醫, 軍官, 別破陣 등의 服飾이 이에 포함된다.

上判事, 次上判事, 押物判事, 判事, 寫字官, 書記, 畫員, 醫員, 良醫의 服制는 주로 紗帽에 團領을 착용한 경우와 紗帽에 直領을 착용한 경우, 그 밖에 例外的인 것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軍官은 戎服과 軍服으로, 別破陣은 笠에 直領을 착용한 경우로 區分할 수 있겠다.

56) 通文館志, pp.84~85 참조.

57) 이 圖繪에 있어서의 冠은 上·下部가 모두 金色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지만, 형태가 梁冠과 같으므로 梁冠이라 상정하였다.

服은 裳과 中單의 착용이 보이지 않고 藍絲帶가 보임이 특이하지만, 冠과 부속들이 朝服의 形制와 일치하므로 朝服이라 상정하였다.



1. 上判事 以下 服類<sup>58)</sup>

“紗帽-團領”의 形制가 나타나는 圖繪는 「登城行列圖」로, 이 圖繪에는 모두 烏紗帽를 착용했으며, 服으로는 上判事, 判事, 製述官, 良醫, 寫字官 1人 等은 黑團領을 착용했고, 寫字官 1人, 書記는 綠團領을 착용했으며 모두 胸背를 부착했다.

“紗帽-直領”의 形制는 「通信使行列圖」와 「正裝服飾圖」 그리고 「饗應服飾圖」에서 볼 수 있다.

「通信使行列圖」에는 모두 烏紗帽를 착용, 服으로는 上判事, 次上判事 製述官, 良醫 醫員이 紅色直領袍를 押物判事는 靑·綠·玉色의 直領袍를 착용했다. 「正裝服飾圖」에도 모두 紗帽에 綠色直領을 착용하고 胸背를 부착했으며(圖 5) 「饗應服飾圖」에서도 紗帽에 綠色直領을 착용한 形制로 나타난다.(圖 8)

앞과 같은 形制 外에도 寫字官服, 書記服, 上判事朗으로 다음과 같은 形制가 나타난다.

즉, 「通信使行列圖」에서 寫字官服으로 “黑笠-紅直領”, 書記服으로는 靑·綠直領, 그리고 「信使人物圖」에는 上判事服으로 “儒巾-直領”의 形制를 볼 수 있는데 앞서의 東破冠과 마찬가지로 儒巾의 좌측에 두 줄의 구슬 장식품이 부착되어 있다.(圖 9)

2. 軍官服類<sup>59)</sup>

上官服類 中, 軍官服類에는 戎服과 軍服으로 구별되어 나타나며 別破陣服으로는 戎服과 笠에 直領을 착용한 경우로 구별된다.

戎服은 「行列記」를 제외한 5個의 圖繪에서 軍官의 服制로 나타난다.

「通信使行列圖」에는 笠에 紅色帖裏를 착용하고 동개와 등채를 지녔고 「登城行列圖」에는 앞·兩側에 虎鬚를 꽂은 笠을 쓰고 靑色帖裏에 紅絲帶를 띠고 동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正裝服飾圖」에는 옥로 장식의 笠에 靑色, 藍色의 帖裏를 착용하고는 紅絲帶를 띠고, 동개와 환도 등채를 지녔다.(圖 10) 또한 「饗應服飾圖」에는 옥로를 장식한 黑笠과 걸은 藍色, 안은 紅色인 楸帖裏를 착용하고 그 위에 靑絲帶를 띠었지만 부속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信使人物圖」에는 옥로 笠에 帖裏를 착용하고 동개와 환도를 부착

했다.

以上에서와 같이 戎服에 있어서의 笠은 옥로 수식의 笠과 虎鬚 수식의 笠과 같은 두 종류가 있고, 帖裏는 紅, 靑, 藍色으로 된 帖裏가 나타난다.

軍服은 「行列記」에서 볼 수 있는데, 兩側에 두개의 虎鬚 수식이 있는 戰笠에 戰服을 착용하고 동개를 찼다.

別破陣服은 「通信使行列圖」와 「登城行列圖」에서 볼 수 있다. 前者의 別破陣服은 戎服차림으로 兩側에 孔雀羽를 꽂은 笠에 紅帖裏를 착용하고 동개를 찼다. 後者에는 笠에 靑色直領을 착용하고 紅絲帶를 띠었다.

## C. 次官服類

次官服類에는 伴尙, 騎船將, 喂鷹, 別陪行, 典樂, 馬上才, 理馬 等の 服이 포함된다.

次官服은 笠에 帖裏를 착용한 경우와 笠에 直領을 착용한 경우, 그리고 具軍服으로 구분된다.

“笠-帖裏”의 次官服制는 「通信使行列圖」에 나타나며 笠은 兩側에 孔雀羽로 笠飾을 단 형태와 笠飾이 없는 두 가지 형태를 보인다. 帖裏에 있어서는 靑色과 紅色 두 가지인데 부속물로는 동개를 찼다.

“黑笠-直領”의 形制로 次官服이 나타나는 圖繪는 「登城行列圖」이다. 이 圖繪에서 伴尙과 典樂이 黑笠에 直領을 착용했는데 直領은 靑色에 紅絲帶를 띠었다.

次官服에 있어서의 具軍服制는 「正裝服飾圖」와 「饗應服飾圖」에서 볼 수 있는바, 伴尙, 喂鷹, 理馬, 別陪行, 騎船將 등의 服飾이 모두 具軍服이다. 戰笠은 앞면 안쪽에 藍色雲紋緞으로 꾸며져 있으며, 삭모와 孔雀羽를 여러개 묶은 다발을 뒤에 늘어 뜨렸다. 동달이는 허리 밑까지 짧으며, 소매 끝동 부분에 紅色 천을 대었다. 또한 ‘걸’은 灰, 綠, 보라, 靑 등으로 되어 있다. 戰服은 안이 紅色, 걸이 藍色인 楸戰服이다. 帶는 靑絲帶나 靑·黃戰帶를 매었다.(圖 11)

## D. 中官服類

中官服에는 都訓導, 小通事, 禮單直, 鄉書記,

58) 上·次上·押物判事, 製述官, 寫字官, 書記, 畫員, 醫員, 良醫服類를 포함.

59) 軍官, 別破陣服을 말함.

卜船將, 廳直, 盤纏直, 吸唱, 一行奴子, 使奴子 樂人, 旗手, 小童, 炮手, 使令服이 포함되며, 形制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都訓導 以下 服飾類<sup>60)</sup>

이들의 服飾은 笠에 帖裏를 착용한 경우와 笠에 直領을 착용한 경우, 그리고 具軍服이 자주 나타나며, 이 외에 戰笠에 더그레를 착용한 경우가 보인다.

“笠-帖裏”의 形制는 「通信使行列圖」와 「登城行列圖」에 나타난다. 「通信使行列圖」에는 都訓導, 禮單直, 廳直, 卜船將 등이 笠의 兩側에 孔雀羽를 꽂고 紅, 靑色의 帖裏에 동개를 찬 服制이며 「登城行列圖」에는 都訓導만 虎鬚로 장식한 笠에 靑色의 帖裏를 입었다.

“黑笠-直領”의 形制가 보이는 圖繪는 「登城行列圖」「正裝服飾圖」「饗應服飾圖」이다. 「登城行列圖」에는 小通事, 廳直, 盤纏直, 使奴子, 一行奴子, 吸唱 등이 黑笠에 靑色 直領을 착용하고 紅絲帶를 띠었다. 「正裝服飾圖」에는 禮單直, 盤纏直, 鄉書記의 服으로, 「饗應服飾圖」에는 小通事, 禮單直, 鄉書記, 盤纏直, 吸唱服으로 黑笠에 靑色 直領을 입고 藍絲帶를 띠었다. (圖 12)

具軍服의 形制가 보이는 圖繪는 「正裝服飾圖」와 「饗應服飾圖」이다. 「正裝服飾圖」에는 都訓導, 使奴子의 服飾으로 끝동 부분에 紅色 천을 대고 길이가 허리 밑까지 오는 土黃, 灰色의 동달이와 안은 紅色, 겉은 藍色인 緞戰服을 입고 靑絲帶를 띠었다.

「饗應服飾圖」에는 都訓導, 卜船將, 使奴子, 一行奴子의 服飾에 있어 戰服은 「正裝服飾圖」와 같으나 동달이는 綠·靑色이며 黃·靑戰帶를 띠었다. (圖 13)

이 외에도 이들의 服制로 「正裝服飾圖」에는 小通事와 一行奴子의 服으로 戰笠에 藍色더그레를 착용했다. (圖 14)

2. 樂人服類

樂人服類에는 喇叭手, 太平嘯, 螺角, 笛, 嵇琴, 瑟, 鈿樂手, 銅鼓手, 錚手, 長鼓手 등의 服이 이에 포함되며 이들이 착용한 服飾은 戰笠에 창옷을 착용한 경우, 笠에 帖裏를 착용한 경우,

戰笠에 창옷, 더그레를 착용한 경우, 戰笠에 더그레를 착용한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笠-창옷”의 形制는 「通信使行列圖」에 나타나는데, 全 樂人이 이와같은 服制로서 笠의 帽頂에는 삭모가 달려 있고, 창옷은 紅色으로 나타났다. (圖 15)

“笠-帖裏”의 形制는 「登城行列圖」에는 나팔수 태평소, 나각수服으로, 「正裝·饗應服飾圖」에는 吹手服으로, 「使信人物圖」에는 모든 樂工이 착용한 形制로 나타났다. (圖 16)

“笠戰-창옷, 더그레”의 形制는 「登城行列圖」에 吹手를 제외한 樂人服으로 나타났다. 창옷은 白, 灰, 紅, 靑色, 더그레는 靑, 鴉靑, 綠, 黑, 灰色으로 되어 있다. (圖 17)

“戰笠-더그레”는 「饗應服飾圖」와 「行列記」에 나타나며 「饗應服飾圖」에는 銅鼓手, 錚手, 細樂手가 「行列記」에는 全樂人이 戰笠과 白色衣袴 위에 더그레를 착용한 形制를 볼 수 있다.

3. 旗手服類

旗手服에는 靑道旗, 纛手, 形名旗, 偃月刀, 巡視旗手, 領旗, 長鎗, 三枝鎗, 節手, 鉞手 등의 服이 포함된다.

이들 服飾은 戰笠에 더그레를 착용한 경우, 戰笠에 창옷, 더그레를 착용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겠다.

“戰笠-더그레” 形制의 옷은 「行列記」에 虎鬚로 장식한 戰笠과 더그레를 착용한 모습이 나타나며, 「正裝·饗應服飾圖」에는 양태 안쪽에 藍色雲紋緞과 삭모로 장식한 戰笠과 白色衣袴 위에 藍色더그레를 입었다. (圖 18)

“戰笠-창옷, 더그레”의 旗手服制는 「登城行列圖」에서 볼 수 있는데, 笠頂에 삭모를 장식한 戰笠에 창옷과 더그레를 착용했다. 이 때 창옷의 色으로는 白, 灰, 紅, 보라, 靑色이며 더그레는 藍, 靑, 黑, 綠, 灰色이다. (圖 19)

4. 기 타

이 항에서는 中官服類 중, 小童, 炮手, 使令 등의 服을 포함시키기로 하겠다.

小童에 대한 服制는 「通信使行列圖」「登城行列圖」「正裝服飾圖」「饗應服飾圖」 그리고 「信使人物圖」 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모두 민머리에

60) 都訓導, 小通事, 禮單直, 鄉書記, 卜船將, 廳直, 盤纏直, 吸唱, 一行奴子, 使奴子.

靑 또는 灰色의 直領袍를 입었다.(圖 20)

炮手服制가 나타난 圖繪는 「登城行列圖」「正裝服飾圖」 등이다.

「登城行列圖」에는 笠頂에 삭모를 장식한 戰笠에 靑, 紅, 灰, 白色창옷과 綠, 靑, 鴉靑色 더그레를 착용했다.

「正裝服飾圖」에는 삭모로 수식하고 양태에 藍色雲紋緞을 띤 戰笠을 쓰고 白色 衣袴 위에 鴉靑色 더그레를 입고 藍絲帶를 띤 形制로 나타난다.

使令服制가 보이는 圖繪는 「行列記」를 제외한 모든 圖繪에서 나타난다.

「通信使行列圖」에는 使令服으로서 笠頂을 삭모로 장식한 笠에 紅色 창옷을 입고 靑色巾을

어깨에 두르고, 또 손에는 朱杖을 들었다.

「登城行列圖」「饗應服飾圖」「信使人物圖」에는 黑笠을 쓰고 白, 靑色 창옷 위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黑半臂衣를 착용했으며, 손에는 朱杖을 든 形制로 나타났다.(圖 21)

「正裝服飾圖」에는 兩側에 孔雀羽를 장식한 黑笠과 白色衣袴에 鴉靑色 더그레를 입고 藍絲帶를 착용했으며 朱杖을 손에 든 形制이다.

E. 下官服類

下官服類에는 沙工服과 格軍服이 포함된다. 이들 下官은 수식이 없는 戰笠에 白色衣袴 위에 藍色 더그레를 착용하고 靑絲帶 또는 靑·黃色의 戰帶를 매었다.(圖 22)



圖1 正使服



圖2 副使服



圖3 正使朝服



圖4 副使公服



圖5 堂上譯官服



圖6 堂上譯官服





圖7 堂上譯官服



圖8 次上判事服



圖9 上判事服



圖10 軍官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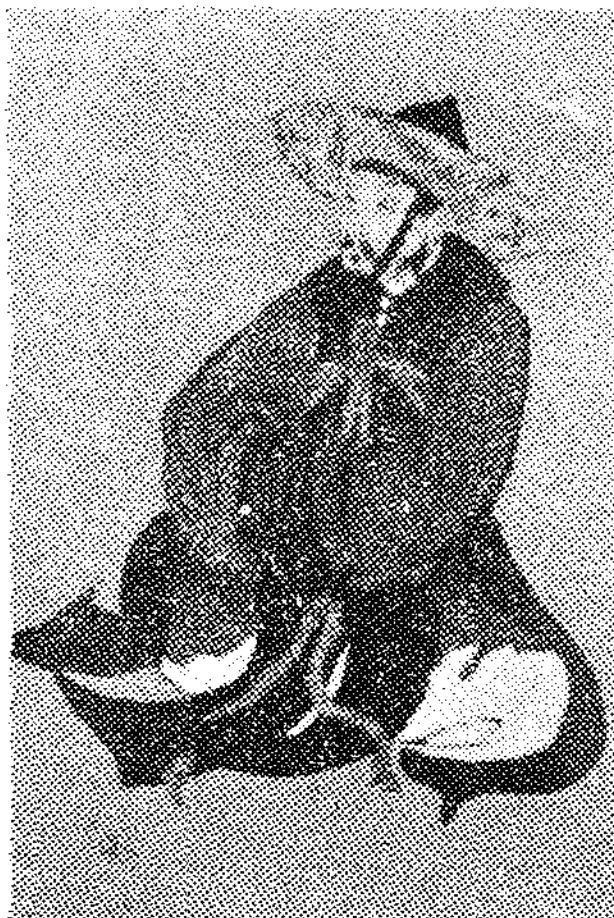


圖11 理馬服



圖12 盤纏直服



圖13 都訓導服





圖14 一行奴子服



圖15 樂人服



圖16 吹手服



圖17 樂人服(吹手제외)



圖18 巡視旗手服



圖19 旗手服類



圖20 小童服



圖21 使分服



圖22 下官服



## V. 要約 및 結論

以上에서 朝鮮王朝時代 通信使一行의 服飾을 考察했다. 壬亂後 12차례의 使行을 記錄한 文獻資料와 6點의 圖繪資料를 통하여 朝鮮中後期の 服飾制度와 服飾生活의 一단을 살핀 것이다.

그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通信使 記錄에 보인 服飾은 매우 多樣하여 朝鮮王朝時代 男服의 거의 모든 局面을 網羅하고 있다. 一行은 堂上官인 使臣을 비롯하여 賤民에 이르는 모든 階層으로 構成되었고, 數 個月에 걸친 旅程中의 여러 行事와 公·私의 享宴, 宿泊地에서의 日常起居 등, 公·私의 服飾生活이 記錄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通信使 記錄은 階級別, 生活局面別 服飾生活의 實狀, 그 分化 등을 確認할 수 있었다.

먼저 文獻記錄에 나타난 服飾種類를 階級別·職分別로 들면,

三使信服; 朝服, 團領, 道袍, 深衣, 蘭衫, 鶴擎衣.

堂上譯官 및 員役服; 團領, 道袍.

軍官 및 裨將服; 戎服, 軍服.

使令服; 鵲衣羽笠 등이다.

이것을 旅程 중 여러 階梯別로 나누어 보면,

서울~釜山; 各 직책에 따라 각기 團領, 鶴擎衣, 戎服.

對馬島~江戶; 各 도착지 別, 儀式別에 따라 服飾類로 使信은 朝服·團領, 員役은 團領, 軍官은 戎服·軍服의 制式을 갖추었으며, 또 도착지마다, 승선에 이르기까지, 매 행사에 크고 작은 宴會가 이루어지는데 公宴에는 團領, 私宴에는 便服.

등으로 類別된다.

이 가운데 三使信이 着用한 朝服은 1711年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며, 各種服飾의 명칭도 年代에 따라 약간씩 달라서 같은 公服을 指稱함에 冠帶·公服·官服·時服·團領 등의 말이 쓰이고 있다. 또 服飾에 관한 言及은 文獻記錄에 따라 자세한 정도가 다르니 대개 後代 일수록 섬세하다.

다음, 圖繪에 보인 服飾은 使信은 朝服·團領, 員役은 團領, 軍官은 戎服·軍服, 使令은

羽笠鵲衣 등, 문헌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나 服飾史學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研究成果와의 特異點을 들 수 있다. 즉

梁冠—朝服·胸背(正裝服飾圖)

梁冠—團領·胸背(登城行列圖)

冠(?)—團領·胸背(信使人物圖에 正使朝服이라 기재됨)

紗帽—直領(通信使行列圖, 饗應服飾圖)

紗帽—直領·胸背(正裝服飾圖)

의 構成이다.

위와같은 着裝型態는 단지 畫工의 表現上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型態가 한 圖繪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圖繪에 同時에 나타난다는 점과 着服之圖라는 명칭아래 의복에 중점을 둔 記錄畫란 性格으로 미루어 보아 筆者는 이 着裝型態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전통제도 복식이라는 점에 큰 비중을 두고 문제점으로 제기한다. 이것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로는 朝服—胸背의 制式이 18C 記錄畫인 嘉禮班次圖에도 보인다는 點이다.

위와 같이, 本 論文은 많은 자료를 묶어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個個의 型態를 記述하지 못한 흠이 있으나, 이를 기틀삼아 이 계통의 論文이 많이 엮어져서 우리 傳統 儀禮 服飾生活의 실상이 밝혀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參 考 文 獻

- 「經國大典 上卷」(1962), (法制資料第四輯), 서울: 法制處.
- 「國譯大典會通」(1975),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 「國譯海行摠載」(1977), 1卷~10卷, 고전국역총서,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金東旭(1973), 「增補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 閔斗基(編著)(1980), 「日本の 歷史」, 서울: 知識産業社.
- 安輝濬(1982), 「韓國繪畫史」, 서울: 一志社.
- 李基白(1982), 「韓國史新論」, 서울: 一潮閣.
- 柳喜卿(1980),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 李相佰(1959), 「倭寇와 對日關係」, 「韓國史近世前期篇」, 서울: 震檀學會.
- (1959), 「韓國史近世後期篇」, 서울: 震檀學會.

- 「通文館志全」(1973), 서울: 景仁文化社(영인본).
- 中村榮孝 外(1982), 「朝鮮通信使」, 서울: 東湖書館.
- 김미자, “民庶便服袍의 옷깃에 대한 研究”, 「대한 가정학회지」 제14권 1호.
- 李京子(1978), “官隸服飾考”, 「韓國衣類學會誌 別冊」, 2卷, 2號, 서울: 韓國衣類學會.
- (1982), “우리 衣生活의 傳統樣式”,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 5 집,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82), “動駕鹵簿의 服飾研究”, 「韓國文化研究院 論叢」第40輯,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 李元植(1973), “純祖十一年辛未日本通信使差遣에 對하여”, 「史學研究」, 第23號, 서울: 韓國史學會.
- 李進熙(1976), 「李朝의 通信使」, 東京: 講談社.
- 中村榮孝(1969), “朝鮮의 日本通信使と大阪”, 「日本關係史の研究(下)」, 東京: 吉川弘文館.
- 「通信使來聘名錄」(1971), 朝鮮古書畫總覽, 京都: 思文閣.
- 金鍾旭(1973), “壬亂後의 朝鮮과 日本의 復交”, 「日本研究」.
- 李俊杰(1973), “朝鮮通信史의 日本派遣歷程, 上·中·下”, 「日本研究」 10月~12月.
- “日本속의 韓國美術뿌리”(1981), 「세계」 11號, 서울: 聯合通信發行.